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또 하나의 근거

대동운부군옥·동국통지·동서휘찬

2006년 이후 일본 기마네현의 역사행사가 매년 되풀이 된다. **대동운부군옥·동국통지·동서휘찬**을 통해 독도 도발 및 일본의 역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또 다른 역사적 증거를 알아보자.

글 김수란 사진제공 독도재단 자료출처 예천박물관



『대동운부군옥』 목판_예천박물관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학예연구사들이 울릉도·독도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발견한 고서 중 하나는 1589년 편찬된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이다. 『대동운부군옥』은 저자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1534~1591)의 종택 백승각(百承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후손들이 기탁하여 최근 예천박물관으로 이관됐다. 목판 667점과 책 27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1986년 보물 제878호로 지정될 만큼 조선 시대 때 간행된 출판물 중 가장 가치 있는 문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권문해는 일찍이 퇴계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예천 권씨 문중의 명성을 널리 떨쳤다. 벼슬 생활 틈틈이 자료를 섭렵하며 『대동운부군옥』 저술을 시작했는데, 원나라 음시부(陰時夫)가 지은 ‘운부군옥’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부군옥’이란 여러 항목을 한자음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했다는 뜻이다.

이 책은 ‘삼국사기’와 ‘계원필경’ 등 한국 서적 172종과 중국 서적 15종 등 190여 종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 단군부터 편찬 당시인 선조 때까지 다루고 있다. 총 20권 20책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의 국호, 지리, 성씨, 인명, 효자, 열녀, 수령, 산천, 초목, 화초, 동물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기록되어 있다.

『대동운부군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책에 인용된 한국 서적 가운데 현존하지 않는 책이 40여 종이나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설화집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이나 ‘은대문집(銀臺文集)’ 등 많은 책이 『대동운부군옥』이 아니었다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많은 고전들처럼 완전 자취를 감춰버렸을지도 모른다. 『대동운부군옥』 덕분에 이 책들이 편린으로나마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동운부군옥』_예천박물관

울릉도·독도 기록만 19개

“『대동운부군옥』은 완역본이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허 학예연구사의 말이다. 『**대동운부군옥**』은 국역이 시작된 이래 2003년 절반 정도인 10권 10책이 나왔고, 잠시 작업이 중단됐다가 2008년 나머지가 국역되어 전 20권 20책으로 완성됐다. 이 완역본을 토대로 조사를 펼친 결과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록이 무려 19개나 발견됐다.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흔적을 이 책에서 찾으려면 울릉도와 독도를 칭하는 또 다른 명칭들을 잘 알아야 했다. 이 책에 울릉도는 우릉도(羽陵島), 울릉도(蔚陵島), 울릉도(鬱陵島), 무릉도(武陵島) 등으로 되어 있고, 신라 장군 이사부가 나무로 사자(獅子)를 만들어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권문해는 『대동운부군옥』을 쓴 이유에 대해 “조선의 선비들이 중국 역사와 역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선 문자가 없던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여기는 것은 제대로 된 문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동운부군옥』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첫째, 민족자존의 입장을 고려해 방언, 속명 등우리 고유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다. 둘째, 원본에 충실하도록 서로 모순되는 것들도 원 사료의 것을 그대로 기록한다. 셋째, 자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넷째, 후대의 감계(鑑戒)가 되도록 권장할 만한 것들은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 다섯째, 유학을 존숭(尊崇)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힌 울릉도·독도에 대한 기록들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보물로 지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책을 구분해 놓은 기준 자체가 지금의 백과사전과 달리 미묘처럼 복잡하기 때문이다. 허 학예연구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과사전의 구분 기준인 ‘ㄱ’, ‘ㄴ’, ‘ㄷ’ 순이 아니라 한자의 운(韻)별로 항목을 분류한 뒤에 표제어의 끝 글자별로 배열해 놓았다”며 “이 때문에 좀처럼 항목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동운부군옥』에서만 울릉도·독도에 대한 기록을 총 19개 발견할 수 있었다”며 “영유권 입증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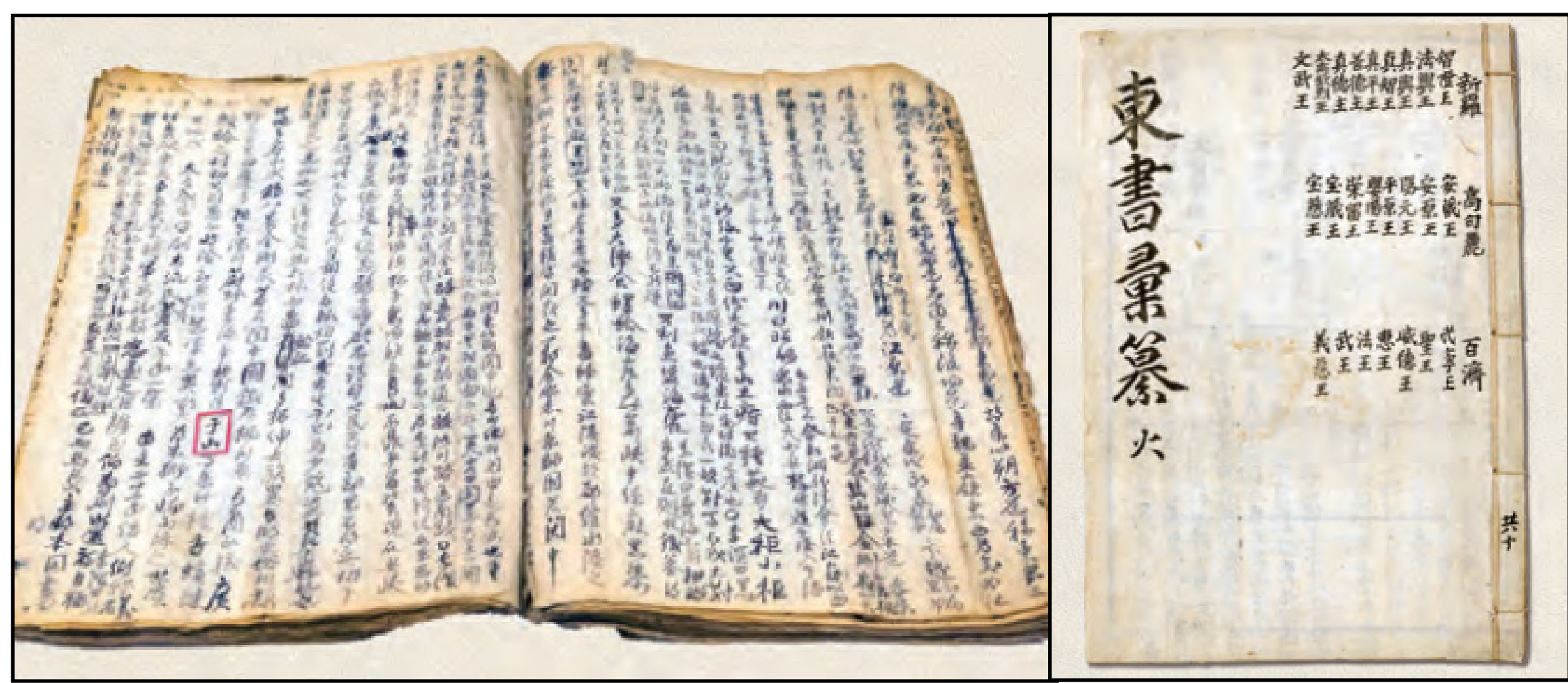
고서인 『동국통지』와 『동서휘찬』에서 찾아낸 울릉도·독도

‘유레카!’ 2종의 각기 다른 고서에서도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천박물관에서 보유중인 『**동국통지(東國通志)**』와 『**동서휘찬(東書彙纂)**』이 그것이었다.

『동국통지』는 산천(山泉) 박주중(朴周鍾·1813~1887)이 1868년에 저술한 기전체 형식의 백과사전으로, 천문(天文), 오행(五行), 지리(地理), 제사(祭祀), 예악(禮樂), 병위(兵衛), 형법(刑法), 식화(食貨), 예문(藝文), 학교(學校), 선거(選舉), 백관(百官), 여복(輿服), 율력(律曆) 등 14지(志)로 구성되어 있다. 박주중은 사대부들이 중국의 풍속에는 통달하면서도 우리의 것은 잘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고유의 문물을 지키고 그 성대함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의 역사 인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알 수 있다.

『**동국통지**』의 지리지(地理志)에는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조선 시대 수도 정책, 안용복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동서휘찬**』은 석천(石泉) 김정식(金庭植·1862~1929)이 19세기에 저술한 백과사전으로, 고조선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왕조 순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동서휘찬』 화(火)편 신라 지증왕조(智證王朝)에 울릉도의 위치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국통지』(왼), 『동서휘찬』(오)

반박의 중요 사료인 이유

이번에 『대동운부군옥』, 『동국통지』, 『동서휘찬』에서 발견된 울릉도·독도에 대한 기록은 그 의미가 크다. 일본 학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계는 과거 조선이 외부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섬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켰다는 것에 대해 ‘공도 정책(空島政策)’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 결과 조선 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망각했으며 17세기 안용복과 일본의 충돌, 19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재발견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589년에 편찬된 『**대동운부군옥**』에는 섬(島), 사나움(桴), 사자(獅子) 등의 일반 명사에 울릉도가 인용되고 있었다. 1868년에 만들어진 『**동국통지**』, 19세기에 집필된 『**동서휘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허 학예연구사는 “백과사전에 울릉도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은 조선 전기 한국인들의 사고체계 속에 울릉도가 일상적으로 유통·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일본 학계가 그동안 역사를 부리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 공도 정책이란 용어는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침략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의 해양 정책 전반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공도 정책하에서 섬은 원칙적으로 나라의 지배와 보호가 미치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고, 행정편제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은 이와 달리 울릉도와 독도를 버려두지 않았다. 수토사를 보내 중앙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했고 이에 대한 근거는 지금도 사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독도 정책에서 ‘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공도’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며 ‘안전 또는 외부 침략에 대비해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킨 정책’을 의미하는 ‘쇄환(刷還) 정책’으로 지칭해야 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이자 울릉도의 생활권역 섬이며, 조선 정부의 울릉도 관리는 독도를 포함한 영역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다.